

'365일 · 24시간' 편의점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 외식업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경쟁브랜드 출점 · 상권악화 · 자연재해 땐 폐업 위약금 면제 · 감면

앞론 종종 문란한 편의점이 전보다 눈에 띄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주는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를 핑기가 쉬워지고 편의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4시간 영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 · 외식 · 도소매 · 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 휴무신청 사항을 점주들에게 공지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명절당일 4주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승미 공정위 거점거래과장은 "현재 관행은 점주가 개별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다르다"며 "개정을 통해 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6시로 보고, 이 시간 내에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심야 영업 단축요건에 해당했다. 하지만 대상 시간대가 지정부터 오전 6시로 1시간 늘어났다. 또 영업손실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편의점 분야 자율규약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와 업계는 '한 집 건너 한 집' 상태인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자율규약을 내놨다.

이 때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하겠다"며 희망제업시 영업위약금 면제 방안도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면제 · 감면기준이 명

확히 적혔다.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엔 위약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 ·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 ·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매기려면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오너가 친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 점주들의 손해를 이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오너리스크' 손해 배상정규 내용도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포함됐다.

이 과정은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 지 실추나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한은, 만장일치 금리동결 '관망 기조' 장기화되나

한국은행이 24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각종 경기지표 부진에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경기 흐름만 보면 금리 인하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한은으로서는 지난해 금리인상 명분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 등을 감안해야해 당분간 관망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성본관에 위치한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75%의 금리를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올린 뒤 1년간 동결해오다 지난해 11월 한차례 추가 인상에 나선 바 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동결의 주된 이유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으로는 수출(發) 경기 둔화 국면이 현실화되고 있고 밖으로도 중국 경기 둔화 등 세계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성장세를 견인했던 수출마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경제감이 크게 높아졌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8%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에서 수출도 2.2% 하락, 지난 2017년 4분기(-5.3%)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소비지출가상승률도 지난해 연간 1.3%로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유

가 하락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총재도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두고 "내다보이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특히 비쌀 여건이 우호적인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언거꾸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불안한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던 셈이다.

세계 경기 하강 조짐에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선터라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도 덜어진 상황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금리를 연 2.25~2.50%로 인상했으나 올해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한·미 금리차는 현재 0.78%p인데 미 연준이 다시 금리인상 가속세를 밟지 않는 한 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도 어긋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조사(200명(104개 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9%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올리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낮출 경우 시장에서는 올해 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하반기에는 한은도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아직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금리인상 주장 의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주 · 전남 지역 주택 공급량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지역주택조합 물량 더해지면 실제 공급량 늘수도

올해 광주 · 전남 지역 주택 공급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지역 주택건설사들이 공급량 조절

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도회 조사 결과 전년도 공급량보다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도 지역 건설사들의 자체 사업 공급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6700여 가구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구도심개발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단지들 비롯한 지역내 계획물량은 더해질 경우 실제 공급량은 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지역내 계획물량은 5012가구, 실제 공급량은 7409가구를 기록했다.

같은 해 지역 중견주택업체들은 주택사업의 원자재인 공공택지의 매입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시에서의 재건축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을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 올리는데 주력했다.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속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가격상승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2호선공사나 한전공사 및 클러스터 설립, 광주형 일자리 등 각종 부동산 호재로 지역 부동산시장은 대구와 더불어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중기부 전남동부사무소, '찾아가는 수출상담반' 운영 호평

기업 애로전반에 실질적 도움으로 만족도 높아

중기부 전남동부사무소(소장 정진삼)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수출상담반'이 전남 동부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담반은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애로 전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있는 현장지원팀으로 전남동부사무소 수출지원 담당자,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상담반은 수출분야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수출상담반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금, 특히, 전시회 참가 등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한

편, 즉시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유관기관 협력',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별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진삼 전남동부사무소장은 "금년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담반을 활용하여 수출과 관련한 답답함을 해소하길 바란다"면서, "기업이 요청하면 전문가를 즉시 파견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